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1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강아지 공장 금지 법안에 서명

법안(S.1130/A.4283)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의 소매 반려용품점 판매 금지

반려용품점은 입양 홍보를 위해 상점 공간 임대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강아지 공장에서 반려용품점으로 반려동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반려용품점에서 개, 고양이, 토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S.1130/A.4283)에 서명했습니다. 의회 합의를 기준으로 마련된 이번 법안은 2024년 발효되며 반려용품점은 입양 홍보를 위해 상점 공간을 쉼터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개, 고양이, 토끼는 사랑하는 가정에서 인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하여 주 전역의 동물 복지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기쁩니다."

법안(S.1130/A.4283)의 목적은 대규모 학대 브리더가 적절한 수의학적 돌봄, 식료품, 사회화 등을 진행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많은 경우 나쁜 환경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동물을 입양한 가정은 진료에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안에 따라 반려용품점은 동물 쉼터 또는 구조 단체와 협력하여 입양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가정이 필요한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Michael Gianari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동물 친구들을 위해 악질적인 강아지 농장을 철폐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커다란 진전을 이룬 날입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우리의 가족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동물을 위해 일어서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Linda B. Rosentha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에 서명하여 강아지 농장을 철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주에서는 더 이상 끔찍한 강아지 농장이 반려용품점에 동물을 공급하여 동물 학대로 이익을 얻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려용품점에서 개, 고양이, 토끼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쉼터와 구조 단체는 이러한 상점과 협력하여 입양 가능 동물을 소개하고

가정에 입양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족이 지불하는 수천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리더로서 뉴욕의 역할은 다른 주정부를 독려하여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것은 주지사님과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